

## 지석철 전



전시제목 : 지석철 전

전시기간 : 2026년 3월 18일(수) – 2026년 5월 17일(일)

전시장소 : 갤러리 아본 도곡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33 3층)

출 품 작 : 회화 및 설치 29점

○ 문의 : [galleryavondogok@gmail.com](mailto:galleryavondogok@gmail.com)

T 02- 2058- 3236

## 1. 작가 소개 및 약력

### 지석철 (Ji, Seok Cheol) (1953~ )

1953 대한민국 경남 마산 출생

1971 경남 마산고등학교 졸업  
197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82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1-201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역임

작가 지석철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1~2018년까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서울, 대구, 전주, 부산, 도쿄, 베를린 등에서 42회의 개인전과 제12회 파리비엔날레,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 시카고 아트페어, 싱가포르 아트스테이지, 한국현대미술전(대만 카오슝 시립미술관), 사실과 환영: 극사실회화의 세계전(호암 갤러리, 서울), 한국근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등 500여 회의 단체전에 초대되었으며,

제1회 중앙일보 미술대전 「장려상」, 제3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상 「석남미술상」, 제8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런던 대영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전쟁기념관(서울), 와카야마현립미술관(일본)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 주요 개인전

2026	갤러리 아본 도곡, 서울
2023	페이토갤러리, 서울
2018	소피스갤러리, 서울
2017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2015	애플갤러리, 전주
—	노화랑, 서울
2012	노화랑, 서울
2011	LEE 갤러리, 베를린, 독일
2003	도시갤러리, 부산
2002	인화랑, 서울
1999	노화랑, 서울
1998	삼성프라자갤러리, 분당
1997	Ninth Gate, 조선히otel, 서울

—	서화갤러리, 서울
—	미사갤러리, 서울
1995	인화랑, 서울
1994	기림갤러리, 대구
1992	나인갤러리, 서울
1987	그로리치화랑, 서울
1984	그로리치화랑, 서울
1982	그로리치화랑, 서울
1981	다무라화랑, 동경, 일본
1980	그로리치화랑, 서울

## 주요 단체전 및 국제전

2025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서울)
2014-2018	싱가포르 아트스테이지 ( 싱가포르 )
2013	휴스턴 아트페어 ( 미국 )
2012	한국현대미술전 (카오송 시립미술관, 대만)
2011	대구 미술관 주제전 (대구미술관, 대구)
2010	젊은모색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9-2025	KIAF (코엑스, 서울)
2009	극사실회화의 어제와 오늘 (성남아트센터, 성남)
2008-2009	칼스루헤 아트페어 (독일)
2007	이스탄불 아트페어 (터키)
2006	「그.리.다」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회화와 조각의 리얼리티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05-2006	시드니 아트페어 (호턴 파빌리온, 오스트레일리아)
2004-2005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 (후앙 카를로스 1세 전시장, 마드리드)
2004	시카고 아트페어 (페스티벌 홀, 네이비 피어, 미국)
2002	‘이것은 그림?’전 (포스코 미술관, 서울)
—	한국현대회화 중남미 순회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2001	사실과 환영:극사실회화의 세계전 (호암갤러리, 서울)
1999-2000	한국현대미술 (캐나다 4개 지역 순회전)
1998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2000-시대정신 (대전)
1997	미술관에 넘치는 유머전 (성곡미술관, 서울)
1995-1997	한국현대미술전 (유럽 10개국 순회전)
1995	의자, 계단 그리고 창 (환기미술관, 서울)
—	공간의 반란 한국의 입체-설치-퍼포먼스 1967~1995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4 서울 국제 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2 제24회 까뉴국제회화제 (프랑스)
- 1991-1999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1 한국미술초대전 (선재 현대미술관, 경주)
- 1990 '90 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9 한국의 현대미술전 (멕시코시티 현대미술관, 몬테레이 미술관)
- 1987 제2회 와카야마 판화비엔날레 수상작가전  
(일본 와카야마 현립근대미술관, 서울 워커힐미술관)
- 1986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5 한국 양화 70년전 (호암갤러리, 서울)
- 1984 '83문제작가전 (서울미술관, 서울)
- 1983 한국현대미술전 - 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동경, 후쿠오카, 오사카 순회전)
- 1982 제12회 파리비엔날레 (파리시립근대미술관, 프랑스)
- 1981 제1회 청년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79 현대미술워크샵-하이퍼리얼리즘 테마전 (동덕미술관, 서울)
- 1978- 1982 사실과 현실 회화전 (미술회관, 서울)

## 주요 수상

- 1978 제1회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수상
- 1983 제3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상 '석남미술상' 수상
- 1992 제8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 수상

## 작품소장처 주요미술관

대영박물관,런던,영국 / 국립현대미술관,과천 / 서울시립미술관 / 대전시립미술관 / 경남도립미술관,창원 / 선재현대미술관,경주 / 성곡미술관 / 호암미술관 / 와카야마 현립근대미술관,일본 / 포스코미술관 전쟁기념관 / OCI미술관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공공기관

ASEM서울 / 페루한국대사관 / 한국외교안보연구원 도서관 / 동아일보사 / 소더비사 서울지점 / 삼성병원,서울 / 순천향대학교병원,부천 / 을지대학병원,대전 / 일산병원

## 2. 전시 소개

### ‘지석철’의 쿠션과 의자

지석철은 한국 극사실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반작용(Reaction)」과 「부재(Absence)」라는 명제하에 쿠션의 이미지와 미니 의자를 지속적으로 등장시켜왔다. 1970년대 말 극히 평범한 소재인 소파 쿠션의 등받이 부분을 극대화시켜 표현한 「반작용」 시리즈로 출발해, 1980년대 초반 파리비엔날레에 한국 대표 작가로 참가하면서 제작된 미니 의자, 1990년대 「부재」 시리즈로 이어지는 평면과 입체의 통합적 연출을 통하여 부재를 표상하는 그만의 의자의 개념을 만들었다.

그는 사진, 판화, 드로잉과 함께 매체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 그의 평면 작업은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설명의 도구로서 미니 의자를 화면에 연출시키면서 시대의 상실과 아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왔다. 다소 생소하고 낯선 장면이 연출되고, 또 다른 연상을 자극하는 그의 화면은 다양한 내러티브를 엮어내는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의 대화 속으로 빠져든다. “의자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되어도 좋을” 존재의 표상인 의자는 작가 자신이기도 하며, 한 개인 혹은 인간 군상의 단상이 되어 또 다른 존재인 사람과 마주선다. 마주치고 스치는 인연들의 만남과 이별, 부재와 기다림, 이들은 모두 반작용의 산물이다. 부재는 ‘그곳에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며, 헤어짐 후에 오는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와 희망은 기억의 유희 속에 머문다.

갤러리 아본 도곡의 개관 기념전을 통해 신작들과 함께 작가의 시대별 핵심적 작품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쿠션 작품과 미니 의자의 다양한 작업의 프로세스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과 사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 3. 작품 소개

지석철은 한국 극사실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반작용(Reaction)」과 「부재(Absence)」라는 명제하에 쿠션의 이미지와 미니 의자를 지속적으로 등장시켜왔다. 1970년대 말 극히 평범한 소재인 소파 쿠션의 등받이 부분을 극대화시켜 표현한 「반작용」 시리즈로 출발해, 1980년대 초반 파리비엔날레에 한국대표 작가로 참가하면서 제작된 미니의자, 1990년대 「부재」 시리즈로 이어지는 평면과 입체의 통합적 연출을 통하여 부재를 표상하는 그만의 의자의 개념을 만들었다.

그는 사진, 판화, 드로잉과 함께 매체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 그의 평면 작업은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설명의 도구로서 미니의자를 화면에 연출시키면서 시대의 상실과 아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왔다. 다소 생소하고 낯선 장면이 연출되고, 또 다른 연상을 자극하는 그의 화면은 다양한 내러티브를 엮어내는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의 대화속으로 빠져든다.

“의자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되어도 좋을” 존재의 표상인 의자는 작가 자신이기도 하며, 한 개인 혹은 인간 군상의 단상이 되어 또 다른 존재인 사람과 마주선다. 마주치고 스치는 인연들의 만남과 이별, 부재와 기다림, 이들은 모두 반작용의 산물이다. 부재는 ‘그곳에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며, 헤어짐 후에 오는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와 희망은 기억의 유희 속에 머문다.